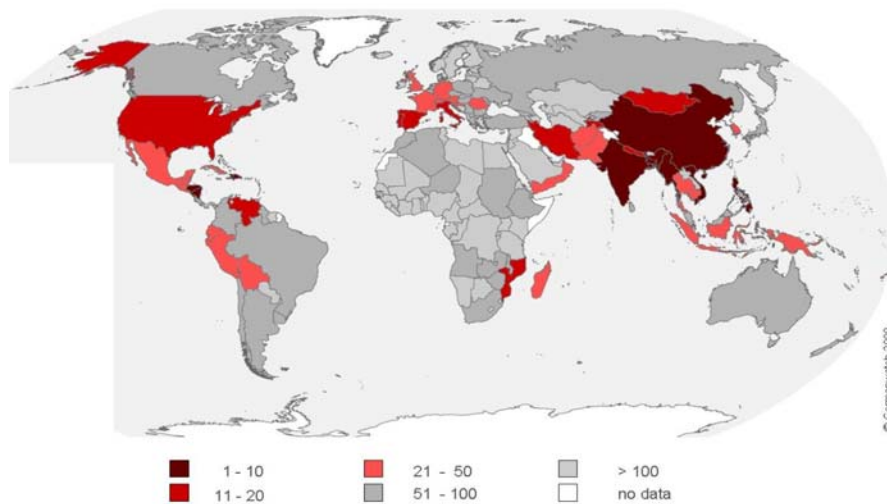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독일의 비영리 기후변화연구소인 GermanWatch와 기후환경 관련 NGO단체인 CAN에서는 매년 전세계 기후위험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에서는 2010년 전세계 기후위험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지표인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각국의 현황을 조사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동향(Trend) 50%, 배출 수준(Level) 30%, 기후정책(Policy) 20% 등으로 나눠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국별 순위를 매겨 산출한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위기지수(CRI)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피해와 사망자 수 등을 조사, 합산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의 순위를 매긴 지표이다.

그림 1 1990~2008년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위기지수(CRI)



자료: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0.

<그림 1>에서는 1980~2010년까지의 기후변화위기지수를 지도로 표현하고 있다. 분석 결과, 방글라데시, 버마, 온두라스, 베트남, 니카라과, 아이티, 인도,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중국 등의 순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후피해가 심했던 국가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개도국이나 최빈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은 2010년의 주요국 기후변화대응지수를 순위별로 나타내고 있다. 본 지표를 발표한 GermanWatch와 CAN은 1위부터 3위까지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

는데, 이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68.0점을 획득한 브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안에 드는 대부분 선진국인 반면, 순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정책부문의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동향과 배출 수준 분야의 점수가 낮아 전체 순위가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정책(Policy) 분야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작성자: 윤종열, 민자혜

표 1 2010년 세계 기후변화대응지수(CCP)

Rank Tendency	Country	Score**	Partial Score			Rank Tendency	Country	Score**	Partial Score		
			Trend	Level	Policy				Trend	Level	Policy
1*	-	-				31 ↓	Argentina	52.2			
2*	-	-				32 ↘	Spain	51.8			
3*	-	-				33 ↗	Belarus	51.4			
4 ↗	Brazil	68.0				34 ↘	Estonia	51.3			
5 ↘	Sweden	67.4				35 ↑	Japan	50.9			
6 ↗	United Kingdom	65.3				36 ↑	Finland	49.5			
7 ↘	Germany	65.3				37 ↗	Ukraine	49.5			
8 ↘	France	63.5				38 ↗	Iran	49.2			
9 ↘	India	63.1				39 ↘	Turkey	49.1			
10 ↗	Norway	61.8				40 ↘	Singapore	48.8			
11 ↗	Mexico	61.2				41 →	Korea, Rep.	48.7			
12 ↗	Portugal	59.7				42 ↑	Austria	48.2			
13 ↗	Switzerland	59.4				43 ↘	Slovenia	48.1			
14 ↗	Latvia	57.5				44 →	Italy	48.0			
15 ↘	Iceland	57.3				45 ↑	Russia	48.0			
16 ↑	Belgium	57.2				46 ↓	Bulgaria	47.5			
17 ↓	Denmark	57.0				47 ↓	Taiwan / China	47.5			
18 →	Lithuania	55.9				48 ↓	Croatia	47.4			
19 ↘	Hungary	55.6				49 ↘	Poland	47.4			
20 ↗	Malta	55.2				50 ↗	Malaysia	46.9			
21 ↗	Algeria	55.1				51 ↘	Cyprus	46.6			
22 ↘	Ireland	54.9				52 ↘	China	46.6			
23 ↗	Indonesia	54.9				53 ↗	United States	46.3			
24 ↘	Slovakia	54.7				54 ↗	Greece	46.0			
25 ↘	Czech Republic	54.6				55 ↓	New Zealand	44.8			
26 ↑	Thailand	54.6				56 ↗	Luxembourg	42.8			
27 ↗	Netherlands	54.3				57 ↘	Australia	41.9			
28 ↓	Morocco	53.3				58 ↘	Kazakhstan	41.4			
29 ↗	South Africa	52.9				59 →	Canada	40.7			
30 ↑	Romania	52.9				60 →	Saudi Arabia	28.7			

자료: 자료: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0.